

“직관”을 “직관”하라!

- 청년층에 대한 이해가 정치, 사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I. 서론

대부분의 기성세대 분들도 모바일 SNS 를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 자녀들이나 젊은이들과도 쉽게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실제 현실도 그러할까?

예전엔 일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 중독을 걱정했지만, SNS 전성시대인 지금은 연령층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SNS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휴대전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Phono Sapiens 시대라는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단연 압권은 유튜브로 대변되는 모바일 개인 미디어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같은 개방형, 폐쇄형 등 각종 SNS 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바일 개인 미디어가 청년층들의 정치, 경제, 산업, 일자리 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대선 이후 현저하게 드러난 세대간의 인식차이나 세대갈등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특히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청년층에게 자리잡고 있는 인식의 출발점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와 실업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소위 산업구조적인 문제,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 교육 구조적인 문제가 거론된다. 69.8% 에 달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서 비롯된 고학력화에 따른 “눈높이 미스매칭” 현상으로 대변되는 교육 구조적인 문제,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이 52% 대에 머물고 있는 노동시장의 처우 격차와 경직성, 이중성 등을 개선하자는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국제 경쟁력은 점점 저하되고 양질의 서비스업 확충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절실한 지금의 산업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만 한다.

II. 본론

1. 카톡, 밴드로 소통하니 청년층을 잘 안다구요?

오랜 산업시대를 거처온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각종 SNS나 인터넷 매체 등을 잘 이용한다는 이유로 청년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면밀히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청년층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책 수립 방향의 실패와 경제사회적 비효율에 대해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흔히들 기성세대 분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요즘 청년들 정말 큰일이다. 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 그들의 눈높이만 낮추면 갈 곳은 많다’ 라고 쉽게 말들을 한다. 얼핏 일자리 통계 등을 보면 객관적 수치로는 맞는 말처럼 들린다.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위크넷을 보면 약 26만여 자리가 구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시대 청년들의 성장과정과 사고 형성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엄청난 간극을 발견할 수 있다.

청년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곤 한다. ‘왜 당신은 최저시급 6,470원, 연봉 1500만원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하고 2000만원 이상의 험한 일자리에 취업하지 않는가?’ 라고 물으면 거의 99% 동일한 답변이 돌아온다. ‘저는 비록 지금은 최저시급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저는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과연 이들의 ‘보다 큰 꿈’은 무엇인가? 누가 그런 큰 꿈을 심어준 것인가?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면전에서 “너의 눈 높이만 낮춰봐라, 의외로 갈 곳은 많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는가.

2. 요즘 청년들은 빠져서 큰일이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청소년들의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취업의 어려움 탓인지 교사,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이 지속적으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5 위권 직업이 있다. 바로 ‘셰프’다. TV 채널 어디를 돌려도, 모바일 미디어 어디를 클릭해도 소위 ‘먹방’ 천지다. 소위 ‘백주부’라는 요리사가 여러 매체에 등장하여 즐겁게 요리도 하고 프랜차이즈 등을 통하여 돈도 많이 벌었다는 것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연일 소개되고 있고, 여행과 맛집투어를 통해 즐기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비추어진다.

이럴 때마다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아니 세상이 어찌 되려고?’ 라고 말씀들을 주신다. 그렇다면 모바일 미디어가 극도로 발달한 지금, 매일같이 그런 매체들을 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과연 어떤 일에 더 선호도를 부여하겠는가?

3. ‘본질’ v. ‘현상’, ‘논리’ v. ‘직관’

사회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본질’ 보다는 ‘현상’에 훨씬 강하다. 즉 같은 SNS를 하더라도 기성세대들은 합리적, 이성적인 이해 과정과 걸러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청년층은 어릴 때부터 웹과 모바일을 생활화하면서 ‘직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다. 즉,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다. ‘본질’ 그 자체 보다는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상’에 더욱 강한 것이다.

그렇다. 답은 바로 ‘직관’이다. 모바일 미디어 시대의 본질적인 속성, 즉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인 것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중요시하는 ‘본질’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처 ‘본질’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통찰과 사고를 하기에는 너무나 보기 좋은 것과 새로운 것들로 넘쳐난다. 더욱이 종이신문이나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처럼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섭렵하고 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기를 원하는 것만을 찾아 들어가는 소위 ‘정보의 편식’이 개인 모바일 미디어 시대에는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나 산업,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A부터 Z까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재미있고 좋게 느껴지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청년층의 직관적 이해 과정을 마냥 걱정하거나 질타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에는 그에 맞는 논리와 현실이 새롭게 뒷받침될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성세대가 먼저 청년층을 이해하고 반발짝, 한발짝 앞서서 길을 개척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진 않을까?

III. 소 결

어느 누가 지금의 임금격차와 고학력에 따른 눈높이 미스매칭의 문화적 현실 앞에 청년의 면전에서 ‘네 눈높이만 낮추면 갈 데가 많다. 눈 높지만 낮춰봐라’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청년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시 보면 일자리의 미래도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 시대 청년들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의 질과 양을 확보하려는 기성세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공생, 공존의 시대적 가치에 비추어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기여하는 바는 고용창출 지수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약6배 이상이라는 조상 등 이미 많은 자료에서 뒷받침 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기존 서비스업에 첨단 ICT, IOT 신기술들의 결합이 새로운 시대, 청년층의 욕구도 충족하고 일자리의 미래도 열어나갈 것이다. 즉, 고부가가치 헬스케어, 핀테크, 클라우드 펀딩, 복합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면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로 산업구조를 급속히 재편해야만 미래 일자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 일자리정책 설계에 있어 이러한 시대와 상화변화에 따른 젊은 층 인식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대선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젊은층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심지어 50 대에서도 22%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선거전 막판에 소위 ‘골드크로스’를 외치며 마치 역전을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간 것은 그들의 전략일까, 그들만의 착각이었을까? 과연 청년정책과 공약이 부족하거나 나빠서 그랬을까? 과연 그들이 놓친 것은 어느 대목일까? 개인 모바일 미디어 시대의 한복판에서 젊은층의 ‘직관’적 사고와 ‘이미지’적 접근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한 개혁이 없는 한, 좋은 정책과 선언적인 세대교체 구호만으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만의 리그로 전략할지도 모를 일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각처럼 그들을 ‘보호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설계한다면 그에 투입되는 예산은 소위 “Sunk Cost”가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그들을 ‘미래세대 주인공이자 성장동력’이라는 인식하에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사회적 Investment가 되어 크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